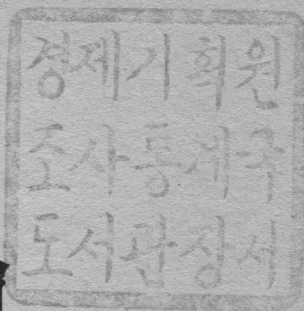


教育資料

89-02-010



會計學概論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035804

目 次

I. 會計와 會計學	3
II. 會計의 循環	8
III. 去來・計定・分介	14
IV. 財務諸表要素	24
V. 決 算	28
VI. 財務諸表(會計報告書)	40
VII. 財務狀態의 概念과 測定(貸借對照表)	45
VIII. 經營成果의 概念과 測定(損益計算書)	55
IX. 財務諸表의 有用性 限界	79

I. 會計와 會計學

1. 會計의 의미

會計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다음의 두 정의가 중요시되고 있다.

첫째, 會計란 “去來 事象을 기록·분류·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技術(art)”로서, 주로 會計報告書의 작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用語公報(ATB,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에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傳統的 會計機能의 관점에서 정의한 것으로, 회계를 주로 會計報告書인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의 작성과 보고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정의는 또 회계를 技術 또는 實務로 간주하여 科學이 아니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會計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哲學·規範·論理보다는 會計處理 報告라는 실무적 학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會計란 “經濟情報를 측정·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이용자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는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SOBAT,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에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會計를 情報指向의 接近法(information-oriented approach)에 의해 정의한 것으로, 會計에서 정보의 측정과 전달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 정의로부터 會計學에서 情報理論, 測定理論, 意思決定理論, 커뮤니케이션理論 등 社會科學理論들이 논의될 수 있게 되었고, 회계학은 技術의 범주를 벗어나 社會科學으로서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의 두 정의는 대조적이거나 會計는 본질적으로 양면을 갖고 있어 두 정의는 통합되어 會計를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 정의는 전통적 정의로서 技術과 實務의 측면을 강조하고, 두번째 정의는 현대적 정의로서 科學과 理論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는 技術과 科學 또는 實務와 理論의 양면을 갖고 있어 어느 한 쪽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會計와 簿記

會計(accounting)와 簿記(bookkeeping)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 이들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簿記는 會計의 일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회계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즉, 簿記는 會計의 技術的 측면을 가리키나, 회계는 簿記概念을 포함하면서 科學的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簿記는 원래 “帳簿記入”의 약칭으로,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資產·負債·資本·收益·費用으로 기록 계산하며, 그 증감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簿記의 목적은 會計報告書인 財務諸表의 작성과 보고 그 자체인 것이다. 會計는 簿記의 이러한 技術的·機械的·反復的 측면 이외에도 科學的·理論的·分析

的 측면을 갖고 있어 簿記보다 범위가 넓고 차원이 높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會計는 簿記이다”라는 고루한 固定觀念에 젖어 會計를 단순한 計算技術로 여기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會計를 經理라고도 부르고 있다. 사회나 기업에서도 會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會計를 단순히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자금조달업무를 취급하며, 세금계산을 하는 업무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會計를 簿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3. 會計의 유용성 (효익)

會計의 有用性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처음의 두 有用性은 기업적 차원의 것이고, 세번째 有用性은 사회적 차원의 것이다.

첫째, 會計는 기업 등 經濟的 實體의 財務狀態, 經營成果, 財務狀態의 變動을 기록하여, 財務會計 (financial accounting)의 기초가 된다. 즉, 會計에 의하여 기업의 資產·負債·資本의 증감변화와 收益·費用의 발생을 기록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外部報告 (external reporting)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會計資料는 기업의 歷史的 記錄이 되고, 이해관계자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經濟的 意思決定을 할 수 있게 된다. 經濟的 意思決定에 이용되는 예로, 投資者는 投資意思決定 (株式의 구입·보유·매각의 의사결정)에, 債權者는 信用意思決定 (信用의 공여, 信用條件의 결정)에,

財務分析家は 企業에 대한 收益性 평가 등 投資諮問에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會計는 企業의 經營자가 會計情報를 관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管理會計 (management accounting)의 기초가 된다. 經營자는 企業目標(예, 利潤極大化)를 달성하고자 經營計劃을 수립하고, 經營統制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의 有用性과는 달리 내부 이해관계자인 經營者를 위해 회계자 內部報告 (internal reporting)에 이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經營자는 회계에 의하여 효과적·효율적 經營을 추구할 수 있고, 經營자에 대한 業績評價 (成果評價)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會計는 社會的 次元에서 政府의 經濟政策, 規制, 價格決定에 이용되고, 企業 등 經濟的 實體의 社會적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政府의 經濟政策 수립에 도움이 되는 예로는 經濟開發計劃, 物價統制가 있고, 財政政策에 따른 稅額의 결정도 經濟政策의 범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規制의 예로는 與信規制 (은행의 企業에 대한 貸出金 관리에 대한 규제), 資本市場規制 (株式·社債의 상장·폐지와 투자자보호)가 있으며, 價格決定의 예로는 公共料金の 결정, 國防部·調達廳의 物資購買을 위한 가격결정이 있다. 이들은 모두 회계에 의해 기록되는 財務資料, 原價資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社會적 역할과 책임은 기업이 社會적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社會발전과 人間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이 社會에 대해 해를 끼치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폭리를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利潤追求를 해서는 안되고,

호혜적인 勞使關係를 정립하여야 하며, 環境汚染에 의한 公害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기업의 會計資料를 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고, 會計監査는 會計資料가 신뢰될 수 있도록 작성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는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는 기업이 企業目標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고, 회계정보가 사회에 보고됨으로써 사회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계는 사회발전과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Ⅱ . 會計의 循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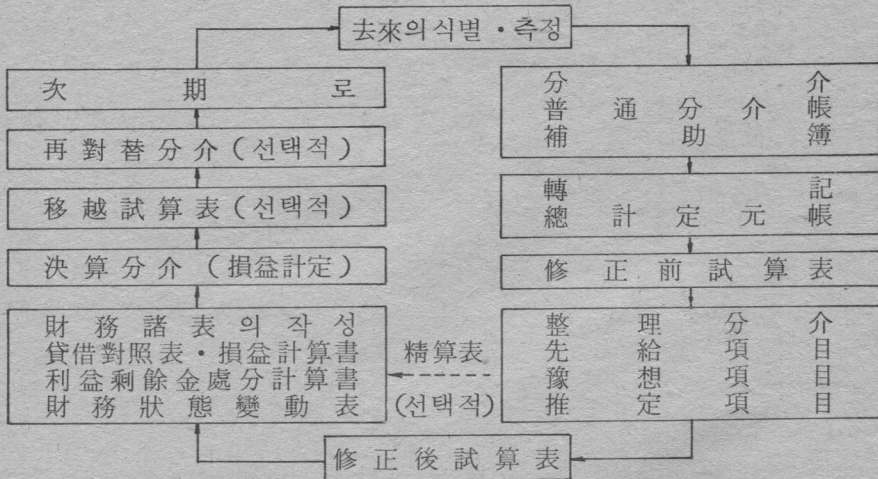
1 . 會計의 循環

會計의 循環 (accounting cycle) 이란 회계가 수행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去來·事象의 인식으로부터 財務諸表가 작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會計의 循環過程은 分介, 轉記, 試算表의 작성, 整理分介, 財務諸表의 작성, 決算分介로 구성된다. 資料의 흐름, 行爲의 순서, 帳簿의 작성순서로도 나타난다. 會計의 循環은 會計處理過程 (accounting process)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會計處理를 다루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會計의 循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 참조) 거래의 식별·측정으로 부터 財務諸表가 작성되고, 決算分介를 한 후에 다시 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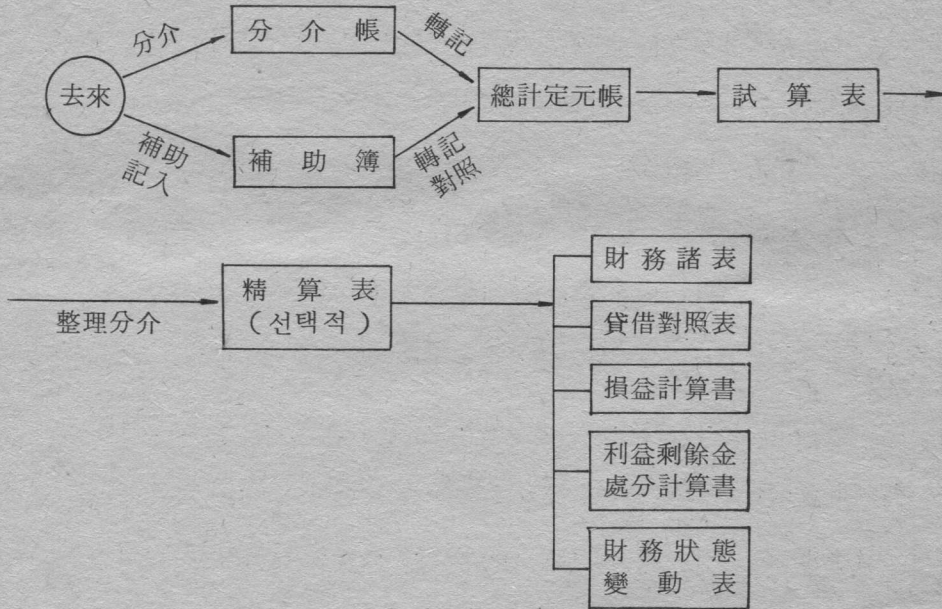
[그림 A]

會 計 的 循 環



같은 과정이 매 會計期間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림(A)는 會計의 循環을 會計行爲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고, 그림(B)는 會計帳簿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B] 會計帳簿를 중심으로 한 會計의 循環



2. 會計等式 (會計方程式)

複式簿記란 하나의 去來를 두 개로, 즉 왼쪽인 借邊과 오른쪽인 貸邊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 기입을 말한다. 이와 같이 去來를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去來의 二重性이라고 부르는데, 去來의 二重性은 會計等式에 의하여 그 有効性이 증명될 수 있다.

會計等式 (accounting equation)이란 會計方程式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財務諸表(특히 貸借對照表)의 기본요소들인 資産・負債・資本간의 관계를 等式關係로 나타낸 것이다. 複式簿記에 의한 회계처리의 正當性은 이 等式關係에 의하여 인정된다. 會計等式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text{資産} = \text{負債} + \text{資本}$$

$$\text{또는 } \text{資産} = \text{持分}$$

* 資本을 所有主持分 또는 株主持分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위의 等式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text{資産} = \text{債權者持分} + \text{所有主持分}$$

$$\text{또는 } \text{資産} = \text{他人 資本} + \text{自己資本}$$

會計等式은 資産이 負債와 資本의 합계와 같거나, 持分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공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負債는 債權者持分 또는 他人資本과 같고, 資本은 所有主持分 또는 自己資本과 같다. 또 資本은 純財産(net worth 또는 純資産, net assets)이라고도 하므로, 資本에서 負債를 차감한 殘餘持分(residual interest)을 나타내기도 한다.

持分(equity)이란 資源, 즉 資産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뜻한다. 持分은 위의 공식에서처럼 債權者持分과 所有主持分(株主持分)으로 나누어지는데, 때로는 持分을 所有主持分만을 가리켜 資本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持分所有主(equity holder)는 債權者와 所有權(株主)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所有主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會計等式은 貸借對照表等式과 資本等式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資本等式表等式(balance sheet formuld)은 회계등식과 마찬가지로 '資産=負債+資本'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貸借對照表의 작성방법을 공식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貸借對照表等式이라고 부른다. 資本等式(capital formula)

은 資産에서 負債를 차감하면 資本과 같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ext{資産} - \text{負債} = \text{資本}$$

이러한 資本等式은 貸借對照表等式을 단순히 변형시킨 것이어서 수학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회계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게 된다. 資本等式에서는 資本인 純財産의 계산이 강조되고 資本主에 대한 회계보고가 중요시되고 있다.

會計等式은 보통 資産·負債·資本간의 등식관계만을 표시하므로, 收益·費用은 등식관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收益은 資本의 증가분이고 費用은 資本의 감소분이 되므로, 收益·費用의 발생은 資本의 증감으로 나타낼 수 있다. 會計等式은 複式簿記制度(double-entry system)의 기본으로 財務諸表 작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會計等式의 등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인 複式簿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업의 經濟的 狀況을 보고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3. 去來의 二重性和 貸借平衡의 原理

會計의 循環에서 會計情報의 흐름은 去來의 二重性和 貸借平衡의 原理에 의하여 去來로부터 財務諸表의 작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去來의 二重性이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미국에서는 去來의 二重影響(dual effects of accounting events)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去來가 발생하면 반드시 양쪽(借邊과 貸邊)이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즉, 借邊에 資産이 증가하면 貸邊에 同額이 증감하고, 하나의 去來에 대해 二重的 認

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去來의 二重性은 分介로 표현되는데, 다음에 설명하는 貸借平衡의 原理와 함께 複式簿記가 수행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貸借平衡의 原理 (principle of equilibrium)는 貸借平均의 原理라고도 하는데, 뒤의 용어는 “平均”이 잘못 붙여진 것이므로 “平衡”으로 고치기로 한다. 이것은 借邊合計와 貸邊合計는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서, 차변과 대변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을 會計의 平衡性 (equality in accounting) 또는 貸借對照表의 平衡性 (balance sheet equality) 이라고도 한다. 貸借平衡의 原理가 성립하는 것은 去來의 二重性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한 것이다. 즉, 去來는 去來의 二重性에 따라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입되므로 借邊合計와 貸邊合計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複式簿記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하여 全計定의 借邊合計와 貸邊合計를 비교하여 그것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기록 계산의 正否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만일 合計額이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나 기록 어딘가에 잘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複式簿記의 自己檢證機能 (自己統制機能, self-control function) 이라고 하는데, 複式簿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4. 會計學의 體係

會計學의 體係는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1) 會計報告의 目的・對象에 따라

① 財務會計 ② 管理會計

2) 教科課程상의 분류에 따라

① 會計原理(財務會計) ② 中級會計 ③ 高級會計 ④ 會計理論 ⑤ 管理會計
⑥ 原價會計 ⑦ 會計監査 ⑧ 稅務會計 ⑨ 會計情報시스템 ⑩ 財務諸
表分析 ⑪ 非營利組織會計 ⑫ 기타

3) 研究對象에 따라

① 微視會計學 ② 巨視會計學

4) 準據基準에 따라

① 企業會計 ② 稅務會計

Ⅲ . 去來 · 計定 · 分介

1 . 簿記上の 去來

去來 (transactions)란 事象 (events)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去來란 사업 또는 업무의 추진 · 수행 · 협상 · 해결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상인과 고객 사이의 商品賣買 또는 金錢貸借를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會計에서 去來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상 차이가 있다.

簿記上の 去來는 會計上の 去來라고도 하는데, 資産 · 負債 · 資本에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 즉 財務狀態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貸借對照表의 要素는 資産 · 負債 · 資本이고, 貸借對照表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簿記上の 去來는 이들의 변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去來는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로부터 다른 재무상태로 옮겨갈 때 발생한 것으로, 財務狀態 변동의 내용은 資産 · 負債 · 資本의 증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의 簿記上の 去來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去來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거래라고 하는 現金을 주고 받거나 商品을 매매하는 것은 資産에 변동을 일으켰으므로 簿記에서도 역시 거래이다. 그러나 商品의 주문, 土地, 建物을 임차하는 계약 등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만, 단지 계약만으로는 資産 負債 · 資本에 아무런 증감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簿記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商品이 화재나 도난을 당한 경우라든가 또는 建物 · 機械의 사용에 의한 가치의 감소 등은 일상생활에서 去來라고 하지 않지만, 簿記에서는 그만큼

資産이 감소된 것이므로 去來라고 한다. 또 현금의 분실이 있거나, 화재 · 홍수 · 도난에 의한 손실이 있거나, 資産을 기증받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부기상으로는 거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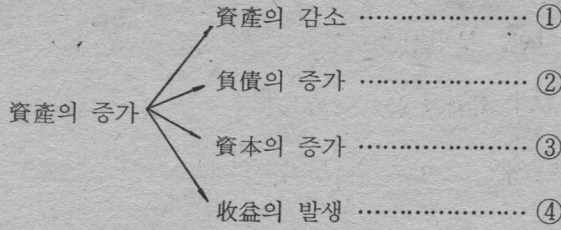
簿記上の 去來는 ① 外部去來와 內部去來 ② 交換去來 · 損益去來 · 混合去來 ③ 現金去來와 對替去來 등으로 나누어진다.

2. 去來의 二重性和 去來要素의 결합관계

기업에서 일어나는 去來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簿記上の 去來로서 資産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資本의 증가와 감소, 收益의 발생, 費用의 발생 등 8가지가 去來의 要素를 이루어 이들이 여러가지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거래의 요소들을 去來의 8要素라고 부른다.

去來의 二重性이란 이러한 거래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2개 이상의 대립된 거래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립하는 양쪽의 去來는 서로 原因이 되고 結果도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는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二重記入이 행하여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複式簿記는 이 양쪽의 변동을 동시에 기록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원래 複式簿記란 용어는 이와 같은 대립관계에 양쪽의 價値變動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二重記入(double entry)하는 것을 의미한다.

(表 1) 資産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 去來要素의 결합관계



<例>

① 商品 ₩ 30,000 을 매입하고, 대금은 現金으로 지급하다.

商品(資産)의 증가 ₩ 30,000 - 現金(資産)의 감소 ₩ 30,000

* 이 경우 商品(資産)의 증가는 買入(費用)의 발생으로 볼 수도 있음

② 機械 ₩ 70,000 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機械(資産)의 증가 ₩ 70,000 - 未支給金(負債)의 증가 ₩ 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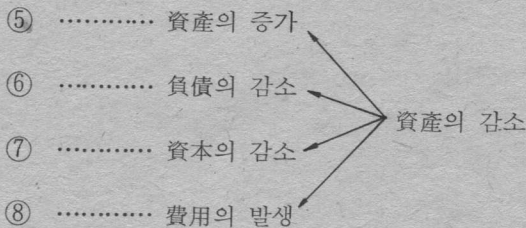
③ 現金 ₩ 100,000 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現金(資産)의 증가 ₩ 100,000 - 資本金(資本)의 증가 ₩ 100,000

④ 銀行預金の 利子 ₩ 25,000 을 現金으로 받다.

現金(資産)의 증가 ₩ 25,000 - 受入利子(收益)의 발생 ₩ 25,000

(표 2) 資産의 감소를 중심으로 한 去來要素의 결합관계



<例>

⑤ 備品 ₩ 20,000 을 구입하고, 대금을 現金으로 지급하다.

備品(資産)의 증가 ₩ 20,000 - 現金(資産)의 감소 ₩ 20,000

⑥ 短期借入金中 ₩ 32,000 을 現金으로 반환하다.

短期借入金(負債)의 감소 ₩ 32,000 - 現金(資産)의 감소 ₩ 3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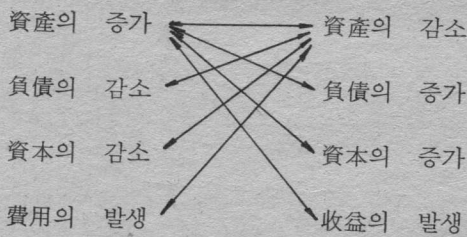
⑦ 기업주가 資本金중 ₩ 10,000 을 現金으로 인출하다.

資本金(資本)의 감소 ₩ 10,000 - 現金(資産)의 감소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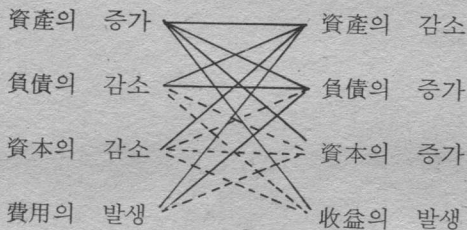
⑧ 水道光熱費 ₩ 13,000 을 現金으로 지급하다.

水道光熱費(費用)의 발생 ₩ 13,000 - 現金(資産)의 감소 ₩ 13,000

(표 3) 資産의 증가와 감소의 결합관계



(표 4) 去來要素의 結合關係表



去來要素의 결합관계란 資産의 증가와 감소, 負債의 증가와 감소, 資本의 증가와 감소, 收益의 발생과 費用의 발생이라는 去來의 8要素가 서로 결합되어 여러 가지 組合(combination)을 이루는 관계이다. 去來要素는 표 1, 표 2처럼 결합하여 결국에는 표 4처럼 去來要素의 결합관계를 그릴 수가 있다. 표 1은 資産의 증가를 중심으로 대립되는 네가지 去來要素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표 2는 資産의 감소를 중심으로 비슷한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표 3은 표 1과 표 2를 결합한 것이다. 표 4는 왼쪽의 네가지 去來要素와 오른쪽의 네가지 去來要素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실선과 점선의 구별에 의한 去來의 빈도는 상대적인 것인데, 특히 費用의 발생과 收益의 발생의 결합은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연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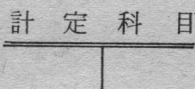
去來要素의 결합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왼쪽 要素와 오른쪽 要素가 결합하지, 왼쪽 要素끼리 또는 오른쪽 要素끼리는 독립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去來는 양쪽의 한 要素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한쪽의 한 要素와 다른 쪽의 두 要素 또는 그 이상의 결합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簿記에서는 모든 去來를 이와 같은 대립관계로 분해할 수 있다.

3. 計 定

去來가 발생하면 資産·負債·資本이 증감변동하고 收益·費用이 발생·소멸하게 된다. 이들 각 항목의 변화를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측정하여 보고하여야만 기업의 會計內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류나 성질이 다른 것을 혼합하거나 일괄하여 계산하면 내용이 명료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 항목들을 분류하여 計算單位로 함으로써 편리하게 회계기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會計上の 記錄・計算單位를 計定(alc, accounts)이라고 한다. 計定の 명칭은 計定科目(title of account)이라고 하고, 計定記入의 장소는 計定計座 또는 단순히 計座라고 부른다.

計定の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T計定(T account)은 T字형의 계정으로, 紙面을 두개의 선에 의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이다. T計定の 왼쪽은 借邊으로, 오른쪽은 貸邊으로 사용된다. T計定은 학교교육에서 자주 쓰이나, 실무에서는 특별한 분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다.



실무상 計定은 元帳(ledger sheet)의 형태를 취하는 수가 많다. 또 편지카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計定이 여러개의 카드를 묶은 집단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시스템을 채택한 기업에서는 計定이 여러개의 코드화한 집단의 磁氣디스크에 수록된 것이 될 수도 있다.

計定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든간에 期初殘額과 기중의 거래로 인한 증감액, 期末殘額이 기록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元帳型의 計定은 형식이 標準式(standard form)과 殘額式(balance from)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표준식이 쓰인다. 標準式은 紙面을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殘額式은 紙面의 처음에 차변, 두번째에 대변, 세번째에 殘額의 란을 설치하는 것이다.

4. 借邊과 貸邊

計定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의 紙面을 중앙에서 2分하여, 왼쪽을 借邊 (Dr., debit)이라 하고 오른쪽을 貸邊 (Cr., Credit)이라고 부른다. 차변을 計定の 왼쪽에 두고 대변을 그 오른쪽에 두는 것은 簿記의 오랜 관습에 의한 것으로,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借邊과 貸邊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簿記發達の 초기에 貸借關係를 기록하는 人名計定에서 고객별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借, 貸를 결정하는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의 관습은 오늘날 기업의 입장에서 借邊은 債權的인 것으로, 貸邊은 債務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었다.

이제 차변과 대변의 원래의 의미는 사라졌고, 단순히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가리키는 부호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借邊과 貸邊의 용어는 分介, 計定, 記入, 財務諸表의 작성 등에 모두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 용어가 되고 있다.

5. 計定記入의 法則 (分介의 法則)

計定記入의 法則이란 資產·負債·資本·收益·費用을 계정에 기입할 때 각 항목의 증가·감소가 각 計定の 차변·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가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것을 分介의 法則이라고도 하는데, 去來를 분개할 때의 법칙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다음은 計定記入의 法則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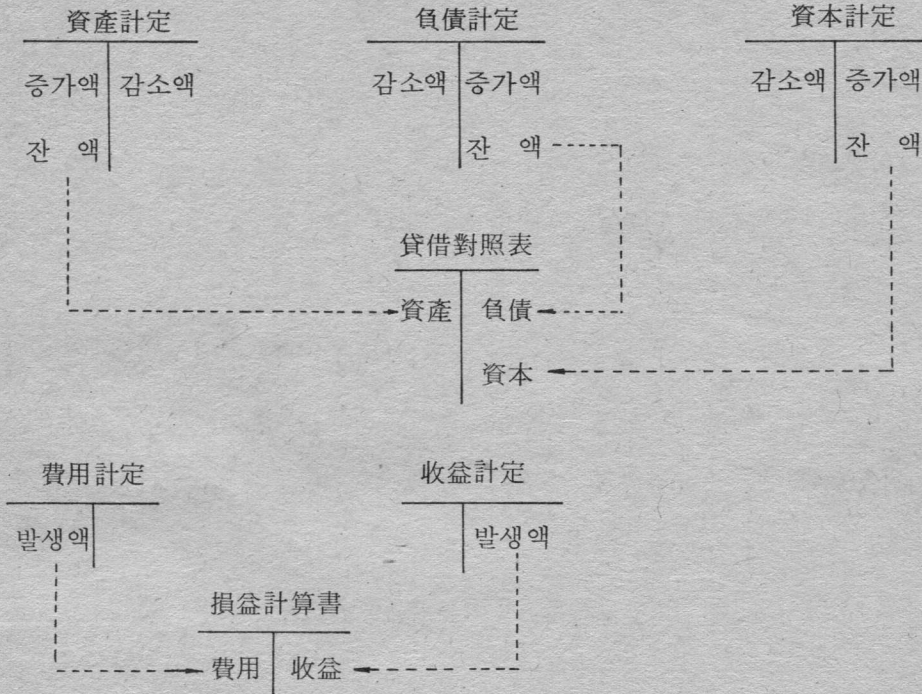
計定記入의 法則

1. 資産計定……증가를 借邊에, 감소를 貸邊에
2. 負債計定……증가를 貸邊에, 감소를 借邊에
3. 資本計定……증가를 貸邊에, 감소를 借邊에
4. 收益計定……발생을 貸邊에, 소멸을 借邊에
5. 費用計定……발생을 借邊에, 소멸을 貸邊에

計定記入의 法則이 성립하는 것은 會計等式인 貸借對照表等式(資産 = 負債 + 資本)과 貸借平衡의 原理에 의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법칙은 또 資産의 잔액은 차변, 負債의 잔액은 대변, 資本의 잔액은 대변, 收益의 잔액은 대변, 費用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므로, 증가를 잔액이 있는 쪽으로, 감소를 이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다음 그림은 計定記入의 法則에 따라 각 계정을 기입하고, 다음에 이들 計定을 財務諸表에 연결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다. 貸借對照表計定인 資産・負債・資本計定에는 증가액・감소액・잔액이 기입되는데, 편의상 증가액 쪽에 잔액을 기입하고, 다음에 각 計定の 잔액을 貸借對照表에 연결시켰다. 資産計定の 借邊殘額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負債 및 資本計定の 貸邊殘額은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입된다. 한편 損益計算書計定인 收益・費用計定에는 발생액이 기입되고, 다음에 각 計定の 발생액은 損益計算書에 연결시켰다. 收益計定の 貸邊發生額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費用計定の 借邊發生額은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기입된다.

計定과 財務諸表의 연결



6. 分介

分介 (Journal entry) 또는 分介하다, (kournalize)란 거래를 왼쪽 (借邊)과 오른쪽 (貸邊)으로 나누어 分介帳 등에 기입하는 것이다. 分介를 하기 위해서는 計定科目과 金額을 결정하고, 計定の 차변에 기입할 것인가 또는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개할 때 필요에 따라 去來의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기도 한다. 分介帳 (journal)이란 거래를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하여 기입한 장부이다. 分介는 분개장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거래가 많아지고 빈번하여 분개장 대응으로 補助

簿, 傳票, 證憑 (vouchers) 등이 쓰여 分介가 이들 장부에 바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分介는 會計測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會計의 循環에서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분개가 이루어지면 다음 元帳記入인 轉記가 이루어지고, 試算表가 작성되며, 최종적으로 財務諸表가 작성되게 된다. 이로써 분개가 잘못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정이 모두 잘못되어 최종적으로는 財務諸表도 잘못 작성되는 결과가 된다. 즉, 會計測定이 잘못되면 會計報告가 잘못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分介는 적절한 計定科目과 金額으로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會計原理 학습의 지름길로 分介能力의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計定科目과 金額을 차변과 대변에 설정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分介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의 양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므로 借邊合計額과 貸邊合計額이 일치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기록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複式簿記의 自己檢證機能 (self-checking function) 또는 自己統制機能 (self-control function)이라고 한다. 모든 簿記上の 오류가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은 아닌데, 우연히 相計될 수 있는 오류는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도 오류가 추적될 수 없어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IV . 財務諸表要素

1 . 資産 (Assets)

資源 (resources) 또는 經濟的 資源 (economic resources)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특정의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去來·事象의 결과로 획득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効益 (probable future economic-benefits)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資産의 예로는 現金, 外上賣出金, 有價證券, 在庫資産, 土地, 建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資産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金錢, 不動産, 財産 등의 용어는 회계에서 쓰지 않는다. 資産은 미래의 經濟的 効益을 창출하는 것으로, 미래의 純現金流入 (future net cash inflows)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經濟的 効益創出能力을 用役潛在力 (service potentials)이라고 부른다. 그밖에 資産에는 權利나 所有權이 존재하기도 하고, 형태에 있어서는 有形 (형체가 있는) 이거나 無形 (형체가 없는) 일 수가 있다. 無形資産의 예로는 營業權, 特許權 등이 있다.

2 . 負債 (Liabilities)

義務 債務 (obligations) 또는 經濟的 義務 (economic obligations)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특정의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去來·事象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去來 事象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에 資産을 이전하거나 用役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의 가능한 經濟的 効益의 희생 (probable future sacrifices of economic benefits)이

라고 정의될 수 있다. 負債는 흔히 빚, 債務라고 표현되고 있고, 債權者請求權 (Creditors claims) 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 負債의 예로는 外上買入金, 支給어음, 短期借入金, 社債, 長期借入金 등이 있다.

3 . 資本 (capital)

所有主特分 (owner's equity) 또는 株主特分 (stock-holders' equity) 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기업의 資産으로부터 負債를 차감하고 남은 殘餘持金 (residual interest) 으로, 所有主가 청구할 수 있는 소유주의 몫이다. 株式會社의 경우 資本에는 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の 세가지가 있다. 자본금은 원시출자한 投資資本이고, 資本剩餘金은 資本去來로 발생한 잉여금이며, 利益剩餘金은 損益去來로 발생한 剩餘金이다.

4 . 收益 (Revenues)

收益이란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의 주요경제활동인 재화의 인도·생산 및 용역의 제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資産의 유입 또는 負債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收益의 예로는 賣出額, 受入利子, 固定資産處分利益 등이 있다.

收益이 발생하면 대개 현금의 유입이 있으므로 收益의 실현은 현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現金의 회수를 收益의 실현으로 보는 것을 現金主義, cash basis 라고 한다),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收益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現金의 회수가 없어도 期間損益의 결정을 위하여

收益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을 發生主義, accrual basis 라고 한다).

5. 費用 (Expenses)

費用이란 收益創出活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資産의 유출액 또는 負債의 증가액이다. 즉,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의 資産의 유출·사용 또는 負債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의 주요경제활동인 재화의 인도·생산 및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費用의 예로는 買入, 給料, 水道光熱費, 支給利子 등이 있다. 費用 (expense)은 흔히 原價 (costs)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특정회계기간 동안의 收益創出과 관련되어 當期費用化할 期間費用 (period costs) 이고, 후자는 특정제품의 생산과 관련되어 原價化할 製品原價 (product costs)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6. 純利益 (Net Income)

利益, 當期純利益, 損益, 當期純損益이라고도 한다. 앞의 두 용어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주로 利潤追求이므로 損失을 고려하지 않은 利益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뒤의 두 용어는 損失과 利益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當期純利益 또는 當期純損益은 특정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期間概念이 고려된 것이다. 純利益 또는 利益이란 기업의 資本 (純資産)의 변동액으로서, 소유자에 의한 投資나 소유주에 대한 分配은 이 資本變動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本이 증가하면 利益이 발생하고, 資本이

감소하면 損失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資本變動額에서 소유주와 관련된 投資·分配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純利益 또는 利益은 위와 같이 기업의 資本變動額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收益은 資本의 증가분이고, 費用은 資本의 감소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계산도 결국에는 資本變動額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V. 決 算

1. 決算의 의의와 절차

1) 決算의 의의

기업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분개하고, 元帳에 전기하여 각 計定の 증감을 계산한다. 그러나 기업의 계산은 이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기업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끊어서 計定을 정리하여 그 기간에 생긴 損益을 계산하고 財務狀態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일정기간을 끊어서 장부를 정리하며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조사하는 일을 決算이라고 한다.

決算(closing)이란 일정기간(會計期間 또는 事業年度)이 종료된 후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財務狀態,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經營成果, 그리고 財務狀態의 변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商法 제 30 조에 의하면 商人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결산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결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1년에 1회 결산을 하나, 2회를 하는 기업도 있다. 證券去來法 제 93 조에서는 上場會社에 대해 반년마다 半期報告書を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半期決算은 會計期間末에 하는 正規決算은 아니고, 회계자료의 잠정적 推計에 의한 假決算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決算의 절차

決算節次는 결산의 순서로, 보통 아래의 순서에 따라 決算이 이루어진다.

- ① 試算表의 작성, ② 整理分介
- ③ 決算分介, ④ 計定·帳簿의 마감
- ⑤ 決算報告書의 작성

위의 순서중 ① 試算表 작성 후에 精算表가 작성될 수 있고, ④ 計定·帳簿의 마감후 移越試算表가 작성될 수도 있으나, 이들 표의 작성은 선택적이므로 작성되지 않는 수가 많다.

決算에서 처음 試算表를 작성하는 것은 우선 分介帳·元帳에 오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완전한 財務諸表를 작성하기 이전에 기업의 財務狀況을 개략적이거나 알기 위해서이다.

2. 決算整理

1) 決算整理의 필요성

決算整理 (year-end adjustments)란 기말에 會計帳簿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기 이전에 整理分介 (修正分介)를 함으로써, 기업의 일상적 거래에 대한 기록인 分介帳·元帳을 보충하여 기말에 추가로 분개할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決算整理를 함으로써 완전한 財務諸表의 작성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가 확정되게 된다.

決算整理가 필요한 것은, 첫째, 일상적 거래가 집계되어 元帳이 작성되는데, 이 元帳의 計定殘額을 기초로 하여 그대로 財務諸表를 작성할 경우 財務狀態와 經營成果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둘째, 일상적 거래는 아니지만 決算時에 인식할 거래로서 추가적으로 하여야 할 분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外上賣出金의 잔액은 모두 회수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회수가능성에 따른 貸損額 (貸損充當金轉入額으로 계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商品과 같은 在庫資產은 期初在庫額을 수정하여 期末在庫額을 계상하고 商品減耗損失, 商品評價損失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決算整理事項은 아래표에서 ①先給·移延項目, ②豫想項目, ③推定項目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決算整理는 推定項目의 정리라고 볼 수 있고, 損益의 決算整理는 先給·移延項目 및 豫想項目의 정리라고 볼 수 있다.

決算整理를 위한 분개를 整理分介 (adjusting entries) 또는 修正分介라고 한다. 整理分介는 오류를 수정하는 訂正分介 (correcting entries)와 혼동되기 쉬우나 다른 것이다. 또 整理分介는 결산시에 수행하는 決算分介 (마감分介, closing entries)와도 구별되는데, 決算分介는 결산시 收益·費用計定을 마감하여 損益計定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말한다.

決算整理事項의 種類

- | | | | | |
|---|------|---|---|--------|
| 1. 先給·移延項目
(prepaid-deferred items) | ☆ { | 費用의 移延 (先給費用) : 費用에서 차감하여 資産으로 이월
收益의 移延 (先受收益) : 收益에서 차감하여 ... 負債로 이월 | } | 資
債 |
| 2. 豫想項目
(accrued items) | ☆☆ { | 費用의 豫想 (未支給費用) : 費用에 가산하여 ... 負債로 이월
收益의 豫想 (未受收益) : 收益에 가산하여 資産으로 이월 | } | 資
債 |
| 3. 推定項目... 費用의 추정 (貸損充當金, 減價償却充當金)
(estimated items) | | 費用에 가산하되, 資産의 評價計定으로 계상 | | |

- ☆ 移延計定이라고도 부른다.
- ☆☆ 豫想計定이라고도 부른다.
- 移延計定과 豫想計定을 합쳐 經營計定이라고도 한다.

2) 資産의 決算整理

資産의 決算整理는 資産計定을 結算시 수정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① 商品計定の 정리, ② 有價證券의 평가, ③ 貸損充當金の 설정, ④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 ⑤ 無形固定資産의 상각, ⑥ 現金過不足의 처리, ⑦ 假支給金の 처리, ⑧ 外貨資産의 평가 등이 있다. 負債의 決算整理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① 修繕充當金·販賣保證充當金の 설정, ② 外貨負債의 평가 등이 있다. 資産·負債의 決算整理는 주로 推定項目에 관련된 決算整理라고 할 수 있다.

(1) 商品計定の 정리

商品計定은 純粹計定·分記法과 3分法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전자의 방법보다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앞에서 권고한 바 있다. 商品計定の 정리는 3分法을 택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純粹計定·分記法の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이다.

3分法에 의해 商品을 賣出·賣入으로 처리하여 왔을 경우, 기말에 期末商品在庫額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즉, 기말에 이르기까지 商品計定에는 期初商品在庫額인 前期移越額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期初商品을 수정하여 期末商品을 계상하여야 한다.

3分法에 의한 商品計定の 수정은 期初商品을 제거하고 期末商品을 새로이 계상하되 期初商品이나 期末商品을 모두 賣出原價로 대체하여야 한다.

商品의 在庫調査 결과 帳簿上の 在庫額과 實地在庫調査額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商品減耗損失(在庫資産減耗損失)을 계상하여야 한다. 減耗損失은 商品의 도난·분실·증발·부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또 기말에

商品의 評價額이 帳簿上의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商品評價損失(在庫資産評價損失)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企業會計基準」 제93조의 ①에서는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時價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時價計上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높을 경우에는 時價計上을 인정하지 않아 商品評價利益은 계상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을 低價主義(lower of cost or market rule)라고 하는데, 原價와 時價 중 낮은 금액으로 계상하는 기준이다. 한편, 商品減耗損失과 商品評價損失은 營業外 費用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有價證券의 평가

有價證券(株式, 社債, 國公債)은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時價가 原價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有價證券은 取得原價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제 92 조의①), 時價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時價로 계상할 수 있고(제 92 조의②), 時價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 時價가 帳簿價額보다 30/10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時價로 계상하여야 한다(제 92 조의②와 ⑨)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時價가 原價보다 0%초과 30% 미만 하락할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低價評價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低價評價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有價證券을 時價에 의해 평가할 경우 有價證券評價損失을 계상하나, 有價證券評價利益은 계상하지 않는다. 保守主義에 의하여 未實現利益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되므로, 有價證券評價利益의 계상은 억제되는 것이다.

有價證券評價充當金은 有價證券에 대한 評價計定으로 有價證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有價證券評價損失은 營業外費用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貸損充當金の 설정

貸損充當金은 貸借對照表에 계상하는 外上賣出金 등 受取債權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예상되는 경우 貸損額을 추정하여 설정한다. 원래 外上賣出金 등의 기말잔액은 회수될 금액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貸損處理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貸損充當金은 外上賣出金, 받을어음, 短期貸與金, 未受金, 未受收益 등 短期債權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제 14 조), 長期貸與金, 長期性받을어음 등 長期債權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제 26 조). 貸損充當金은 해당 債權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評價計定이다.

貸損充當金은 보통 債權殘額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데, 賣出額의 일정비율로도 계산될 수 있다. 결산시 貸損推算額은 차변에 貸損充當金轉入額은 대변에 貸損充當金으로 처리하고, 期末債權 가운데 회수불가능한 債權에 대해서는 차변에 貸損償却, 대변에 해당 債權으로 처리한다(제 75 조의①).

前期發生債權에서 貸損이 발생한 때에는 貸損充當金과 상계하고, 貸損充當金이 부족한 경우 또는 當期發生債權에서 貸損이 발생한 경우에는 貸損額을 비용으로 계상한다(제 75 조의③) 貸損償却과 貸損充當金轉入額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예, 外上賣出金과 받을어음의 경우)에는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제 75 조의①). 기말에 貸損充當金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 貸損推算時 설정할 貸損充當金보다 많을 경우에 차액

은 貸損充當金 還入으로 처리한다. 貸損充當金 還入은 營業外收益이다.

貸損充當金과 관련된 整理分介는 受取債權에 대한 회수가능성, 貸損充當金의 期末殘額에 따라 달라진다.

(4) 有形固定資產의 減價償却

土地를 제외한 有形固定資產은 시간의 경과, 사용, 진부화 등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되어 간다. 따라서 결산시에 期間損益을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서 당기의 가치감소액을 費用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당해 固定資產의 금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減價償却 (depreciation) 이라고 한다.

기업에서는 減價償却方法으로 보통 定額法과 定率法을 사용하고 있다.

定額法이란 매 회계기간 일정액의 減價償却費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상각 기간동안 균등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年減價償却費는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text{年減價償却費} = \frac{\text{取得原價} - \text{殘存價額}}{\text{耐用年數}}$$

殘存價額은 자산의 耐用年數 경과후 추정되는 남은 금액으로 보통 稅法에서 규정한 取得原價의 10%로 한다. 耐用年數는 자산의 추정사용년수로 보통 稅法에서 규정한 年數를 사용한다. 稅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耐用年數를 정하고 있다.

定率法은 매년 일정률로 減價償却費가 감소하는 방법으로, 각 연도의 減價償却費는 未償却殘額에 일정한 償却率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처음에는 減價償却費가 많이 계상되나 차차 감소한다. 年數償却費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text{年減價償却費} = \text{未償却殘額} * \times \text{定率} **$$

$$= (\text{取得原價} - \text{減價償却充當金}) \times \text{定率} **$$

* 未償却殘額は 帳簿價額으로, 자산의 取得原價에서 減價償却費 累計額인 減價償却充當金을 차감한 금액이다.

$$** \text{定率} = 1 - \frac{\text{耐用年數}}{\frac{\text{殘存價額}}{\text{取得原價}}}$$

減價償却에 대한 整理分介는 차변에 減價償却費, 대변에 減價償却充當金을 계상한다. 減價償却費는 賣出原價(製造經費의 성격) 또는 販賣費와 一般管理費(營業費의 성격)로 계상된다. 減價償却充當金은 資産의 評價計定으로 해당 固定資産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減價償却充當金은 과거년도 부터의 累計로 표시되는데, 해당 資産의 帳簿價額(book value)은 取得原價에서 減價償却充當金을 차감한 금액이다.

例) 1. 備品(取得原價 ₩ 200,000, 耐用年數 10년, 殘存價額 ₩ 20,000을 定額法에 의해 감가상각할 경우에 1년분의 減價償却費를 계상하는 분개를 하라.

(차) 減價償却費 18,000 (대) 減價償却充當金 18,000

2. 위의 자료와 같고 定率이 20.6%라고 가정하자. 定率法에 의해

1, 2차년도의 減價償却費를 계산하고 분개하라.

1차년도의 분개 :

(차) 減價償却費 18,000 (대) 減價償却充當金 41,200

2차년도의 분개 :

(차) 減價償却費 32,713** (대) 減價償却充當金 32,713

* ₩ 200,000 × 0.206 = ₩ 41,200

** (₩ 200,000 - ₩ 41,200) × 0.206 = ₩ 32,713

3) 損益의 決算整理

(1) 損益決算整理의 必要性

損益決算整理는 發生主義를 채택하기 때문에 必要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決算整理를 하기 이전에 現金主義(cash basis)에 의해 회계처리하여 왔던 것을 發生主義(accrual basis)로 수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發生主義란 現金의 수입·지출과는 달리 收益·費用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거래를 把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현금으로 받은 收益이라고 하더라도 당기의 收益에 속하지 않는 것은 收益에서 제외하고, 아직 현금을 받지 않은 것이지만 당기의 收益에 속하는 것은 收益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費用이라고 하더라도 당기의 費用에 속하지 않는 것은 費用에서 제외하고,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지만 당기의 비용에 속하는 것은 費用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금액을 가감조정하여 期間損益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決算時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損益의 決算整理는 損益의 이연과 損益의 예상(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損益의 발생보다는 現金의 收支가 선행된 경우이고, 후자는 現金의 收支보다는 損益의 발생이 선행된 경우이다.

(2) 損益의 移延

① 費用의 移延(先給費用의 계상)

당기에 이미 현금을 지급하여 費用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費用 중에서 차기의 費用으로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결산시에 이 차기에 속할 費用을 당기의 費用으로 부터 차감하고 先給分을 資産으로 계상하는 것을 費用의 이연이라고 한다. 이때의 資産을 先給費用(prepaid

expenses)이라고 하는데, 先給費用에는 先給保險料, 先給賃借料, 先給利子 등이 있다. 先給費用은 費用을 資産으로 이연한 것으로 費用의 未經過分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流動資産에 속한다.

先給分(未經過分)은 차기에 가서 費用이 되는 것이므로, 차기 최초의 날짜에 다시 같은 費用計定에 대체한다. 이러한 計定の 대체를 再對替라 하고, 이때 이루어지는 분개를 再修正分介(reversing entries)라고 한다. 再修正分介는 선택적인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再對替의 여부에 따라 그 다음 이루어지는 분개는 다르게 된다.

위의 계정 마감에 있어서 資産計定에 대해서는 次期移越로 마감하고 다음 기초에 前期移越이 되지만, 損益計定에 대해서는 損益으로 마감하고 다음 기로 이월되지 않아 그 기에 소멸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의 計定の 마감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計定の 마감은 다른 決算整理事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收益의 移延

당기에 收益으로 이미 받은 금액 중 차기에 속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收益計定에서 차감하고 일시적인 負債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여 차기로 이월한다. 이것을 收益의 이연이라고 하는데, 차기에 이월되는 負債를 先受收益(deferred income)이라고 한다. 先受收益에는 先受賃貸料, 先受利子 등이 있는데, 賃借對照表의 負債로 계상된다.

先受收益은 收益을 負債로 이연한 것으로, 차기 이후에 속하는 收益이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短期先受收益은 流動負債에 속하나, 長期先受收益은 移延負債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4) 損益의 豫想(發生)

① 費用의 豫想(未支給費用의 계상)

당기에 속하는 費用으로서 미지급분이 있으면, 이것을 당기의 費用에 가산하는 동시에 未支給의 負債로서 차기로 이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費用의 豫想(發生)이라고 하는데, 發生主義에 따라 費用을 계상하고 未支給費用도 負債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정을 계상하지 않으면 利益은 과대표시되고 負債는 과소표시된다. 未支給費用으로는 未支給利子, 未支給給料, 未支給賃借料, 未支給地代 등이 있다. 未支給費用은 流動負債로 계상된다.

한편, 未支給費用의 경우 負債計上에 있어서 다음의 판단문제가 있을 수 있다. 給料이 月給基準일 경우에는 給料支給日이 월중 어느 날짜이든 그 달에 대한 給料이 지급되었다면 未支給給料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20일이 給料支給日이라고 할 때, 21일부터 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말이 決算日이라고 하더라도 未支給給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週給基準으로 給料이 지급될 경우에 決算日이 給料支給日 사이에 끼어 있으면 未支給給料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未支給費用에 있어서 電氣料, 水道料 등은 검침한 후 1, 2개월 만에 요금ی 청구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費用 인식의 期間歸屬(timing)에 있어에 모호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실무의 관례에 따라 料金の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하되, 決算日에 미청구분에 대해서는 과거 월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을 추정하여 계상하든가 아니면 料金請求日을 기준으로(따라서 1, 2개월씩 費用計上이 늦어진다.)계상할 수 있다. 料金請求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정 월에 청구되지 않고 청구가 누락되었으면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② 收益의 豫想(未受收益의 계상)

당기에 속하는 收益으로서 未受分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당기의 收益에 가산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資産을 나타내는 計定에 대체하여야 한다. 이것을 收益의 豫想(發生)이라고 하고, 이때 계상되는 資産을 未受收益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收益이 발생한 것이므로 發生主義에 의해 收益을 계상하는 것이다. 未受收益으로는 未受利子, 未受手數料, 未受賃貸料, 未受地代 등이 있는데, 流動資産에 속한다.

Ⅵ. 財務諸表(會計報告書)

1. 財務諸表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s)란 기업의 去來를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이다. 財務諸表는 會計報告書(accounting reports), 財務報告書(financial reports), 決算報告書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會計報告書란 財務諸表와 동일한 용어는 아니고 좀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會計報告書에니 회계상 작성될 수 있는 모든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財務諸表도 회계보고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管理會計에서 작성되는 많은 보고서는 회계보고서가 될 수 있으나 재무제표는 아닌 것이다.

財務諸表의 종류로는 ① 貸借對照表, ② 損益計算書, ③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④ 財務狀態變動表가 있다. 財務諸表는 기업의 經濟的 狀況, 즉 財務狀態(財政狀態, financial position), 經營成果(經營成績, results of operations), 財務狀態의 變動(change in financial position)을 나타내는 표로, 기업의 經濟的 活動(economic activities)이 최종적으로 요약되는 표이다.

2. 會計基準 (會計原則)

1)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 (GAP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會計基準으로서, 광범위한 연구 조사와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法律·會計規定에 의하여 일반적 지침으로 준수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會計基準 또는 會計原則이 광범위한 개념인데 비하여 GAAP는 會計規定 자체, 구체적인 會計實務指針 또는 실무로부터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GAAP는 「企業會計基準」이 중심이고, 이에 따라 제정되는 準則·例規도 「企業會計基準」의 하위규정으로서 GAAP에 속한다. 그 밖에 聯結財務諸表基準, 業種別 會計基準(例, 리스會計處理基準) 등도 이에 준하여 GAAP로 본다. 그 밖에 會計規定 자체는 아니지만 회계관련법규로서 商法, 稅法 등도 GAAP를 형성하는 보충적 규정들이다.

GAAP는 원래 회계실무로부터 관습적으로 발달한 會計慣習으로부터 생성된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회계실무로부터 會計慣習을 일반화하는 방법인 歸納的 接近方法(歸納的 會計基準)과 會計目的으로부터 규범적이고 논리정연한 회계기준을 유도하는 演繹的 接近方法(演繹的 會計基準)을 적절히 조화시켜 GAAP를 정립하고 있다. GAAP의 定立機構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財務部 및 證券管理委員會(會計制度諮問委員會가 실질적 업무를 담당)이고, 미국의 경우 財務會計基準審議會이며, 일본의 경우 大藏省 企業會計審議會이다. 우리나라는 政府가 會計基準 정립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기구인 FASB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GAAP의 정립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들 이해관계자를 壓力團體 (pressure group)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韓國會計學會, 韓國公認會計士會, 經濟團體, 國稅廳, 投資者, 債權者 등 이해관계자가 입력단체인 셈이다.

「企業會計基準」 제 2 조 ‘會計의 基本目的’에서는 “...財務上の 자료를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회계처리와 회계보고가 GAAP에 의거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2) 企業會計基準, 商法·稅法의 關係

우리나라에서 企業會計의 중심은 「企業會計基準」(準則, 例規포함)이다. 그러나 「企業會計基準」이 상법·세법과 차이가 있거나, 이들 세 규정으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느 규정을 더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규정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이들 세 규정의 目的과 本質을 살펴보기로 하자. 「企業會計基準」의 目的은 會計目的으로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本質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 期間損益의 산출, 기업경영의 실태 파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商法에는 目的, 本質이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商去來, 商行委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財產法的 解釋과 債權者保護 중심의 思考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資本充實의 原則 등으로 기업의 유지와 債權者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稅法의 目的은 國家財政의 조달, 公平課稅라고 볼 수 있으며, 本質은 課稅所得의 精確한 계산, 經營成績의 稅法的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규정은 目的과 本質이 다르므로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될 수 없고 각기 존재하여야 한다

고 볼 수 있다.

「企業會計基準」과 商法の 차이는 財務諸表의 종류, 資産評價, 利益測定, 移延資産의 종류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企業會計基準」은 商法이 우리나라의 商去來에 관한 最高法律로서 國會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商法을 존중하고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려하는 관점에서 제정되고 있다. 商法은 會計規定에 관련한 사항(주로 會社法에 규정됨)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상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많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규정간의 마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企業會計基準」과 稅法の 차이가 심각하여 많은 충돌을 야기하였으나 최근에는 차이점이 좁혀져 충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차이점이 많은데, 貸損充當金の 설정, 退職給與充當金の 설정, 收益의 실현, 寄附金·接待費 등의 처리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에 있어서도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에 「企業會計基準」과 稅法중 어느 것을 우선시(중요시)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稅務署의 영향력이 강력하여 企業實務가 「企業會計基準」보다는 稅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래 기업은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財務報告를 하고 세무서에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稅務報告를 하면 되지만,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稅法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비교적 덜하지만 대부분의 中小企業은 稅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 企業會計基準

「企業會計基準」은 1981년 12월 23일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證券管理委員會에서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958년 제정되었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을 계승한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은 우리나라의 중심적 會計規定으로서 會計規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의 중심적 규정도 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은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外監法이라고 함) 제13조에 의거 제정되어 法律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다른나라의 경우 民間機構에 의해 會計規定이 제정되어 자율적인 規制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대조가 된다. 현재의 「企業會計基準」은 商法·稅法의 내용을 수용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企業會計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企業會計의 體系는 企業會計基準, 準則, 例規의 순서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聯結財務諸表基準, 建設業會計處理基準, 리스會計處理基準 등 業種別 實務에 따른 회계기준이 있다. 「企業會計基準」은 1981년 12월 23일 제정되었고, 1984년 9월 1일 1차 개정, 1985년 12월 27일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準則은 「企業會計基準」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필요시마다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982년 4월 8일 準則 1-110이 처음 제정되었다. 例規는 「企業會計基準」에 관한 질의의 응답으로서, 1982년 4월 14일 例規1-320이 처음 제정된 이래 그동안 여러개가 발표되었다.

「企業會計基準」은 9장, 131조, 附則③항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總則,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資產, 負債의 평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財務狀態變動表, 附屬明細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Ⅶ. 財務狀態의 개념과 측정

1. 財務狀態와 貸借對照表

財務狀態 (financial position)란 財政狀態, 財産狀態와 비슷한 용어로,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 (경제적 실체)의 富 (wealth), 經濟的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財務狀態는 일정시점이라는 특정시점에서 측정되므로, 스톡 (貯量, stock)의 개념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회계에서 기업의 財務狀態는 貸借對照表로 요약된다. 대차대조표는 資產·負債·資本 (所有主持分)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대차대조표는 財務狀態에 관한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有用性을 갖고 있다.

① 기업의 일정시점의 財務狀態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資產·負債·資本의 금액이 얼마로 결정되는가를 알려준다.

② 기업의 財務構造 (또는 資本構造, capital structure)의 양호·취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업의 支給能力 (solvency)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支給能力은 短期支給能力과 長期支給能力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기업의 資本構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他人資本과 自己資本의 구성이 어떠하며, 自己資本에 있어서 投資原本인 資本金, 資本去來로 인한 資本剩餘金, 純利益이 축적된 利益剩餘金 (또는 缺損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자료이다.

⑤ 기업의 財力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財力은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여러가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데, 특히 資產規模 등 財務狀態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기업의 財務狀態는 資產·負債가 많다고 하여 양호한 것은 아니다. 資產·負債의 규모가 크면 大企業은 될수 있으나 반드시 기업의 財務構造가 양호하거나 收益性이 높은 기업은 아닌 것이다. 資產規模는 크지만, 負債가 資本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서(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 그렇지만) 財務構造가 취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貸借對照表

1) 貸借對照表의 의의

財務狀態表, 財政狀態表(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고도 불리는 貸借對照表(balance sheet)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財務狀態를 나타내는 표이다. 여기서 財務狀態란 기업의 財產狀態, 즉 資產·負債·資本의 상태를 말한다. 다른말로 표현하여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經濟的 狀態(economic condition)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經濟的 資源(economic resources, 資產), 經濟的 義務(economic obligations, 負債), 殘餘持分(residual interests, 資本)을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이다.

대차대조표는 會計等式인 貸借對照表等式(balance sheet equation)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text{資產} = \text{負債} + \text{資本}$$

$$\text{또는 } \text{資產} = \text{持分}$$

이 등식은 企業實體理論(entity theory)에 의한 會計等式과도 일치한다. 會計等式에 따라 貸借對照表는 기업의 經濟的 資源이 이 資源에 대한

請求權인 經濟的 義務와 殘餘持分の 合計와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이로써 기업의 資產은 會計等式에 의해 두개의 角度 (two angles)에서 관찰된다. 첫째로 資產은 기업이 소유한 資產 자체의 目錄 (inventory)을 나타내고, 둘째로 資產은 이에 대한 請求權 (claims)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持分 (債權者持分과 投資者持分)의 目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貸借對照表은 일정시점에서 작성되는 표로, 일정기간에 대해 작성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貸借對認表은 會計期間末 (決算期末)에 한번씩 작성되어 期末貸借對照表가 되고, 이것은 다음 期の 期末對借對照表가 된다. 그러나 기업에서 內部報告 目的으로 매월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外部報告目的으로는 보통 期末貸借對照表만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이것을 決算貸借對照表 또는 단순히 대차대조표라고 부른다.

2) 貸借對照表의 구조와 양식

貸借對照表은 기본적으로 資產·負債·資本의 세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은 貸借對照表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資產=負債+資本의 會計等式이 성립함을 나타내고 있다. 괄호안의 상세한 분류는 「企業會計基準」에 의거한 것이다.

貸借對照表의 구조

(借 邊)	(貸 邊)
資 產 ┌───────────┐ 流動資產 投資及其他資產 固定資產 移延資產 └───────────┘	負 債 ┌───────────┐ 流動負債 固定負債 移延負債 └───────────┘ 資 本 ┌───────────┐ 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

貸借對照表의 書式으로는 計定式과 報告式이 있다. 計定式(account form)이란 計定形式을 사용하는 것으로 차변에 資產, 대변에 負債와 資本을 배열하는 것이고, 報告式(report form)은 資產, 負債, 資本의 순 서로 연속 표시 하는 것이다. 「企業會計基準」 제 10 조의②에 의하여 貸借對照表는 計定式과 報告式으로 모두 작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計定式이 많이 사용되는데, 貸借對照表等式에 따라 資產과 負債·資本이 양쪽에 배열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報告式은 商法에 의한 新聞公告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貸借對照表는 分類貸借對照表(classified balance sheet)의 형식으로 많이 작성된다. 이것은 貸借對照表科目을 단계적으로 세분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에서도 公表用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에는 別紙書式에 규정한 바와 같이 分類貸借對照表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貸借對照表科目은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분될 수 있다.

大分類：資產, 負債, 資本

中分類：流動資產, 投資와 其他資產, 固定資產, 移延資產

流動負債, 固定負債, 移延負債, 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小分類：現金, 預金, 有價證券…

外上買入金, 支給어음, 當座借越…

資本金, 株式發行超過金, 當期純利益…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위의 분류보다 세분하여 流動資產을 當座資產 등으로, 資本剩餘金を 資本準備金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公表用 貸借對照表에서는 別紙書式에 규정한 대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分類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할 것

이다. 貸借對照表에 쓰이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경우 「企業會計基準」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황에 알맞은 용어나 외국의 會計用語를 참조함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會計用語의 선택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規定에 엄격히 따르도록 되어있다.

貸借對照表의 배열은 기본적으로 固定性配列法 (capital arrangement, fixed first order of arrangement)과 流動性配列法 (current arrangement, current-first order of arrangement)이 있다. 固定性配列法은 고정성이 강한 固定項目을 먼저 배열하고 순차적으로 流動項目을 배열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인 鑛山業, 鐵道業, 電話通信業 등에 적당하다. 이 방법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는 고정자산→유동자산, 고정부채→유동부채의 순으로 배열된다. 流動性配列法은 이와 반대로 流動項目으로부터 固定項目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換金성이 빠른 것부터 먼저 기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流動性的 순위 (order of liquidity)에 따라 배열된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원칙적으로 流動性配列法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일지라도 流動性配列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貸借對照表는 資產·負債·資本으로 분류되고, 資山·負債는 다시 流動資產·固定資產과 流動負債·固定負債로 나누어진다. 流動項目과 固定項目의 분류기준에는 1年基準과 營業循環基準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전자를 택하고 있다.

1年基準 (one year rule)이란 資產·負債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나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流動資産 또는 流動負債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固定資産 또는 固定負債로 분류하는 것이다. 「企業會計基準」 제 11조의 3 호에서는 1年基準의 채택을 규정하고 있다.

1年基準에서는 두가지 기준이 고려되는데, 資産에 대해서는 現金轉換可能性 (availability for conversion into cash)이 고려되고, 負債에 대해서는 支給能力을 나타내는 流動性 (liquidity)이 고려된다.

한편 「企業會計基準」에서는 非流動資産으로 ①投資와 其他資産, ②固定資産, ③移延資産의 세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非流動資産 (noncurrent assets)이란 용어는 「企業會計基準」에서 公式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非流動資産과 固定資産을 구별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非流動資産이란 유동자산이 아닌 다른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固定資産 (fixed assets)은 일반적으로 非流動資産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이 고정자산임을 뜻한다. 그러나 「企業會計基準」상으로는 固定資産은 有形固定資産과 無形固定資産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投資와 其他資産, 移延資産은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상으로는 固定資産이 특정자산을 가리켜 한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非流動資産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3) 「企業會計基準」에 의거한 貸借對照表의 計定科目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貸借對照表는 報告式과 計定式이 모두 작성될 수 있다. 計定式 貸借對照表가 資産과 負債資本을 대조적으로 배열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많이 작성되고 있다.

○ 資 産

(1) 流動資産：貸借對照表日 이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실현·판매·소비되는 자산으로서,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① 當座資産：現金, 預金, 有價證券, 外上賣出金, 받을어음, 短期貸與金, 未受金, 未受收益 등
- ② 在庫資産：商品, 製品, 在工品, 原材料, 貯藏品 등
- ③ 其他流動資産：先給金, 先給費用 등

(2) 投資와 其他資産：投資資産은 다른 기업을 지배·통제할 목적이나 장기의 利殖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고, 其他資産은 특정 자산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자산이다.

- ① 投資資産：投資有價證券, 關係會社株式, 關係會社社債, 投資不動産 등
- ② 其他資産：長期性받을어음, 特定現金과 預金, 不渡어음 등

(3) 固定資産：기업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산으로, 貸借對照表日 이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실현 판매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 固定資産은 형태의 유무에 따라 有形固定資産과 無形固定資産으로 나누어진다.

- ① 有形固定資産：土地, 建物, 機械裝置, 車輛運搬具, 工具와 器具, 備品등
- ② 無形固定資産：營業權, 特許權 등

(4) 移延資産：費用을 이연하여 資産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출의 효과가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을 지출한 기간의 비용으로 하지 않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당기에는 資産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創業費, 開業費, 新株發行費, 社債發行費, 試驗研究費, 換率調整借가 있다.

○ 負債

(1) 流動負債: 貸借對照日 이후 1년 이내에 지급될 채무로, 현재의 流動資產의 사용 또는 다른 流動負債의 발생에 의해 청산·상환될 채무이다.

外上買入金, 支給어음, 短期借入金, 未支給金, 先受金, 未支給費用, 先受收益 등이 있다.

(2) 固定負債: 貸借對照日 이후 1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채무이다. 社債, 長期借入金, 長期性支給어음, 退職給與充當金, 修繕充當金 등이 있다.

(3) 移延負債: 收益을 이연하여 장래의 기간에 배분하기 위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換率調整貸, 長期先受收益이 있다.

○ 資本

(1) 資本金: 所有主(株主)가 투자한 금액으로 所有主의 持分比率 계산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株式會社의 경우 資本金은 發行株式總數에 株式의 額面金額을 곱한 것이다. 「企業會計基準」 제54조의 ①에서 資本金은 “法定資本의 額”으로 정의되어 있어, 法律 특히 商法에 의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株式의 종류에 따라 資本金은 普通株式資本金, 優先株式資本金으로 나누어진다.

(2) 資本剩餘金: 資本去來(資本이 증감하는 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資本準備金과 再評價積立金으로 나누어진다.

① 資本準備金：株式發行超過金，減資差益，其他資本剩餘金（國庫補助金 등）

② 再評價積立金

(3) 利益剩餘金：利益剩餘金：損益去來（損益이 증감하는 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이다.

① 利益準備金

② 法定積立金：企業合理化積立金，財務構造改善積立金 등

③ 任意積立金：事業擴張積立金，減價積立金 등

④ 當期末 未處分利益剩餘金：修正後 前期移越利益剩餘金，當期純利益

○ 評價計定

이상의 계정 이외에도 資産·負債·資本의 評價計定이 貸借對照表計定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이들 評價計定이 貸借對照表計定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이들 評價計定은 해당 계정 밑에 괄호로 표시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1) 資産의 評價計定

① 有價證券評價充當金：有價證券

② 貸損充當金：外上賣出金，받을어음，短期貸與金，未受金，未受收金，長期貸與金，長期性받을어음

③ 減價償却充當金：土地，建設假計定을 제외한 有形固定資産의 각 계정

(2) 負債의 評價計定

社債割引發行差金만 있는데，社債計定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 資本의 評價計定

株式割引發行差金과 配當建設利子が 있는데, 資本計定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들 계정은 기업실무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다.

Ⅷ. 經營成果의 概念과 測定

1. 經營成果와 損益計算書

經營成果(營業成果, results of operation)란 經營成績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경제적 실체)의 경영활동결과로 나타난 經濟的 成果를 말한다. 經營成果는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成果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플로우(流量, flow)의 개념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회계에서 기업의 經營成果는 損益計算書로 요약된다. 損益計算書는 收益·費用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차이는 純利益(또는 純損失)으로 표시된다. 損益計算書는 經營成果에 관한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여러가지 有用性을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기업의 일정기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經營成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기간에 대한 收益·費用·純利益이 얼마로 결정되는가를 알려준다.
- ② 기업의 收益性(profitability)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과거의 收益性 평가 뿐만 아니라 미래의 潛在的 收益力(potential earning power)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기업의 經營計劃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長期經營計劃(예, 資本豫算, capital budget)과 短期經營計劃(예, 綜合豫算, master budget)의 수립에 유용하다. 이러한 經營計劃의 수립에는 對借對照表도 유용하나, 미래의 利益計劃(profit plan, 目標利益을 달성하기 위한 計劃)

에 따라 주로 經營計劃이 수립되므로, 이 점을 損益計算書의 有用性으로 여
얼거하였다.

④ 法人稅 등 稅金決定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法人稅 등은 損益計算書
에 의해 계산된 當期純利益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한 후 稅率을 곱하여 결
정된다.

⑤ 기업의 配當政策 수립을 위한 자료가 된다. 利益配當은 損益計算書의
當期純利益과 기업정책(예, 안정적 배당수준의 유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⑥ 경영자의 業績評價를 위한 자료가 된다. 경영자가 기업목표를 어느 정
도 달성하였고, 効率的으로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기업의 經營成果는 純利益이 많이 나타날수록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이 社會倫理에 어긋나는 利益을 얻으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利益은 기업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흔히 기업의 收益力(利益力, earning power)에 대한 평가를 중요
시 하고 있는데, 收益力이란 기업이 利益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
다. 기업에 利益이 많이 생기게 되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경영
자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며, 그 기업의 株價는 상승하고, 負債의 차입이 용
이해지며, 會社讓渡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利益이 많이 생기면
利益에 의해 결정되는 稅金이 많아지며, 配當金도 증가하여 社外流出이 많
아지는 경향이 있다.

2. 損益計算方法(利益測定方法)

損益計算方法으로는 ① 財産과 損益法, ② 去來接近法과 資本維持接近法の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財産性과 損益法

會計學상의 利益(損益)이 會計帳簿상으로 어떻게 산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財産法과 損益法이 있다. 이들 방법은 독일·일본의 損益計算方法이다.

財産法은 會計學상의 利益을 純資産(財産)의 증가액으로 보는 계산방법으로, 기말의 純資産(期末資産)과 기초의 純資産(期初資本)을 비교한 차이가 純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財産法은 資本等式을 응용한 것으로, 期末資本과 期初資本을 비교하여 두 期의 資本等式을 비교한 셈인 것이다. 그런데 기중에 増資(자본금의 증가) 또는 減資(자본금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純損益을 산출하게 된다.

$$\text{期末資本} - \text{期初資本} = \text{純利益}$$

$$\text{期末資本} - \text{期初資本} - \text{増資額} + \text{減資額} = \text{純損益}$$

위의 식에서 期末資本이 期初資本보다 크면 純利益이 나타나고, 반대로 작으면 純損失이 나타난다.

財産法은 財産評價에 의해 損益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기초와 기말의 財産을 비교하여 損益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財産을 열거함으로써 이전의 財産보다 더 나은 상태의 財産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이다. 소유하고 있는 財産을 열거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財産目錄法이라고도 부른다. 單式簿記에서는 財産法에 의한 損益計算方法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損益은 總額으로만 계산될 뿐 損益發生의 원인, 즉 收益과 費用의 각 항목을 알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이것은 財産法에서 對借對照表項目만

을 가지고 損益計算을 하기 때문이다.

損益法은 會計學상의 利益을 收益과 費用의 차액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즉, 損益法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收益總額과 費用 總額을 비교하여 期間 損益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誘導法이라고도 한다. 損益法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總收益} - \text{總費用} = \text{純損益}$$

위의 식에서 總收益이 總費用보다 크면 純利益이 나타나고, 반대로 작으면 純損失이 나타난다.

2) 去來接近法과 資本維持接近法

이 방법들과 앞의 財産法, 損益法은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經濟的 實務에 의한 측정인가, 아니면 會計帳簿상의 측정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들 방법은 미국·영국의 利益測定方法이다.

去來接近法은 損益法과 같이 거래자료를 收益·費用으로 분류하여 대응시킴으로써 純利益을 산출하고, 資本維持接近法은 財産法과 같이 資本의 價値變動에 의하여 純利益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去來接近法과 資本維持接近法은 회계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會計測定의 經濟的 實質 또는 經濟的 意味의 관점에서 본 損益計算方法이다. 여기서 經濟的 實質이란 측정의 대상이 되는 去來 또는 資本의 변동을 經濟的 價値의 관점에서 의미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實質世界 (real world)의 현상을 측정하여 얻은 價値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去來接近法 (transaction approach)이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收益·費用으로 식별하여 대응시킴으로써 純利益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資産·負債 평가액의 변동(증감)도 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去來接近法은 資産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물의 價値變動보다는, 資産이 기업에 유입·유출된다는 추상적인 價値變化過程을 거래로 인식하여 측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資本維持接近法 (capital maintenance approach)은 경제학자인 히스(J. R. Hicks)의 利益概念에 의한 것으로, 기말과 기초의 資本化價値(capitalized value)를 비교하여 利益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資本維持概念에 의해 利益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말과 기초의 資本化價値는 現價計算에 의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資本化(capitalization)한 價値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損益計算方法으로서 去來接近法, 資本維持接近法이 더 나은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財産法·損益法이 보통 사용되고 있다. 전자의 방법들은 이상적인 측정방법이지만 미래의 現在化에 따른 不確實性의 문제 때문에 측정의 어려움이 있어 회계실무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회계에서는 會計測定에 있어서 現價計算(present value computation)을 도입하는 등 보다 더 經濟的 實質價値에 가까운 측정을 지향하고 있어, 후자의 방법들에 의한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계실무가 발전하고 있다.

3. 損益計算書

1) 損益計算書の 의의

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profit and loss statement, statement of

earnings)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經營成果 (results of operations)를 나타내는 표이다. 여기서 經營成果란 經營成績을 뜻하는 것으로, ① 일정기간의 收益의 산정, ② 일정기간의 費用(原價 포함)의 산정, ③ 純損益의 결정이라는 세 가지 과정이 포괄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損益計算書는 대차대조표와 함께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이다. 損益計算書는 收益과 費用이라는 경영활동의 흐름을 일정기간 集積하여 나타낸 흐름概念(流量, flow)의 계산서로, 動態表(흐름表, flow statements)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개념의 會計報告書로는 損益計算書 以外에도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財務狀態變動表가 있다.

損益計算書는 정보이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純利益, 賣出額, 賣出原價 등의 정보와 收益力(earning power)을 표시해 주므로, 대차대조표보다 중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利益強調 또는 利益重視의 會計思考로 연결되었으며, 利益決定이 현대회계의 최대 관심사로 되었다.

損益計算書는 會計等式과 直接 관련없이 작성되는데, 損益法 또는 去來接近法에 따라 利益을 산출한다. 損益計算書의 作成方式 또는 損益計算方法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ext{收益} - \text{費用(原價)} = \text{純損益}$$

또는
$$\text{收益} = \text{費用(原價)} + \text{純損益}$$

여기서 收益(revenues)은 기업의 收入(inflow of assets)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活力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費用(expenses, 原價, costs)은 이 收益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支出(outflow of assets)

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지출된 것이다.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純損益은 커지게 된다.

2) 損益計算書의 구조와 양식

損益計算書는 기본적으로 收益·費用·純利益의 세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은 損益計算書의 構造를 나타낸 것으로 收益-費用=純利益의 등식이 성립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경우에는 純損失이 산출된다. 괄호 안의 상세한 분류는 「企業會計基準」을 따른 것이다.

損益計算書의 구조

(借邊)	(貸邊)
<p>費用</p> <p>———</p> <p>賣出原價</p> <p>販賣費와 一般管理費</p> <p>營業外費用</p> <p>特別損失</p> <p>法人稅 등</p> <p>———</p>	<p>收益</p> <p>———</p> <p>賣出額</p> <p>營業外收益</p> <p>特別利益</p> <p>———</p>
<p>純利益</p>	

4. 收益·費用·利益

가. 收益

1) 收益의 의의

收益 (revenue)이란 재화의 인도·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기업활동으로 期間중 나타난 資産의 유입액·증가액 또는 負債의 청산액이다. 收益의 대표적인 예로는 賣出額 (sales)이 있다. 賣出額은 商品販賣 등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賣出額의 발생으로 現金·外上賣出金·받을어음 등이 증가한다. 그밖의 收益에는 營業外收益인 受入利子 등과 特別利益인 固定資産處分利益 등이 있다.

收益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① 資産의 流入額 (inflow of assets)

收益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로, 收益은 재화의 판매·용역의 제공으로 기업에 들어오는 資産의 流入額이라는 것이다. 즉, 재화·용역과의 교환으로 얻게 되는 貨幣流入額이다.

② 株主持分の 증가액 (effect on stockholder's equity)

收益은 株主持分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단 名目計定인 收益으로 발생하였다가 기말에 損益計定을 거쳐 利益剩餘金으로 대체됨으로써 株主持分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③ 기업의 生産物 또는 產出物 (product of enterprise)

收益은 기업의 生産物로서 기업이 일정기간 창출한 재화와 용역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收益은 흐름過程 (flow process)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기업의 전환동과정인 생산과정과 판매과정 등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

이다. 이 개념에 의하여 收益은 재화의 판매시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점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④ 財貨·用役의 流出額 (outflow of goods and services) 收益은 재화·용역이 기업을 떠날 때 이들을 貨幣額으로 표시한 流出額이라는 것으로 기업이 일정기간 顧客에게 이진한 재화·용역의 총계를 貨幣額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앞의 生産物概念과 비슷하다.

이상의 네 개념 중 ①, ②를 流入額概念으로 묶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收益의 정의로는 流出額概念이 流入額概念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유는 전자가 收益을 이론적으로 정의하여 그 인식·실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후자는 收益을 複式簿記시스템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이 틀 안에서 그 인식·실현을 설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收益의 설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收益의 분류

收益은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賣出額 (sales)

商品 등의 판매 또는 用役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이다.

損益計算書상의 賣出額은 純賣出額으로 總賣出額이 아니다. 總賣出額 (gross sales) 이란 상품판매시 또는 용역제공시 받을 貨幣額으로, 收益差減項目인 賣出에누리와 還入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送狀價格 (invoice price) 이 되는 경우가 많다. 純賣出額 (net sales) 이란 總賣出額에서 賣出에누리와 還入을 차감한 것으로 損益計算書상 賣出額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賣出額은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정상적 활동으로 얻은 收益이다. 주

요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부터 얻은 收益은 營業外收益으로 그리고 비경상적 활동으로 부터 얻은 收益은 特別利益으로 계상된다. 여기서 주요영업 활동이란 기업의 주요영업대상인 商品, 製品 등 在庫資産의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가리킨다.

賣出額으로 부터 賣出原價를 차감하여 賣出總利益이 산출된다. 賣出總利益은 損益計算書에 표시되는 利益 중에서 첫 단계에 산출되는 것으로 商品·製品 등의 판매액과 그 원가를 대비시킴으로써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등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商品·製品 등의 收益性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利益指標가 된다.

(2) 營業外收益 (Non-Operating Income)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收益이다. 營業外收益을 별도의 收益計定으로 인정한 것은 營業收益과 營業外收益을 구별함으로써 기업의 주요영업활동과 주요영업활동이 아닌 收益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에는 營業外收益이 16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3) 特別利益 (Extraordinary Gains)

非經常的·非反復的으로 발생하는 利益이다. 「企業會計基準」 제 86 조에 의하면 特別利益은 “經常損益 以外の 臨時的 利益”으로 規定되어 있다. 예로는 投資資産處分利益·固定資産處分利益·償却債權推尋利益·資産受贈利益(其他資本剩餘金에 속하지 않는 것), 債務免除利益(其他資本剩餘金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企業會計基準」에 의하면 經常項目과 特別項目의 구별을 流動項目과 非

流動項目의 구별과 관련시켜 항목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즉 流動資產處分利益(有價證券處分利益)은 營業外收益으로, 固定資產處分利益은 特別利益으로 분류하고 있다.

收益(revenue)과 利得(gain)은 구별되기도 한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이들을 구별을 하고 있지 않으나, 英美會計에서는 이들을 구별하고 있다.

이 概念의 구별기준은 거래가 기업의 계속적 주요영업활동(ongoing major or central operations)과 관련된 거래인가 또는 주변적·부수적거래(peripheral 또는 incidental transactions)인가이다. 이로써 收益은 기업의 주요영업활동인 商品등의 판매에 관련된 資產流入額이 되고, 利得은 이러한 주요영업활동 以外の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로 인한 所有主持分(純資產)의 증가액이 된다. 收益의 예로 賣出額이 있고, 利得의 예로 有價證券處分利得·固定資產處分利得·資產保有利得이 있다.

거래의 구별기준 以外에도 收益과 利得의 구별은 總概念(gross concept) 또는 純概念(net concept)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收益은 總概念으로 資產流入額 자체가 되나 利得은 純概念으로 資產流入額에서 原價를 차감한 것이다. 예를들면, 有價證券處分利益은 收益이 아닌 利得으로 純概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利得을 利益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有價證券處分利得은 有價證券處分利益으로, 固定資產處分利得은 固定資產處分利益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利益은 純利益을 나타내는 것으로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收益을 광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收益속에 利得이 포함된다. 이것은 廣義의 費用 속에 損失이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3) 收益의 인식·측정·실현

收益의 過程 (revenue process) 은 ① 認識, ② 測定, ③ 實現의 세 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과정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수가 많고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구별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들 과정을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다.

(1) 收益의 인식 (Recognition of Revenue)

收益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收益의 期間歸屬 (timing of revenue) 에 관한 것이다. 즉, 收益이 언제 인식되는가 또는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收益認識基準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열거된다.

① 收益이 실현되었거나 (realized) 또는 실현가능할 (realizable) 것, 즉 交換 (exchange) 이 있을 것.

收益의 실현은 財貨·用役과 現金·現金請求權 (受取債權) 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환이 있었거나 있을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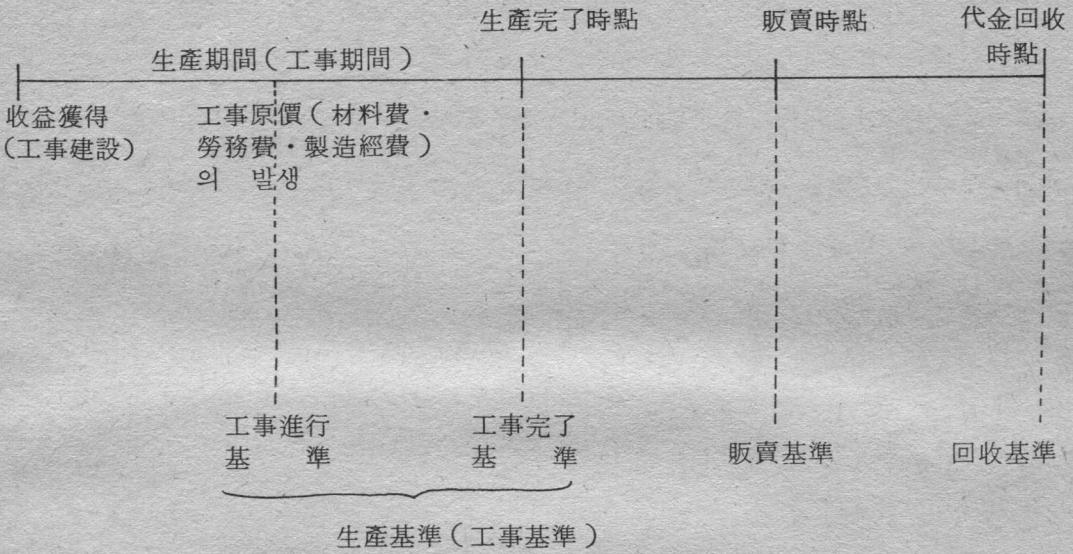
② 收益이 획득되었을 (earned) 것.

기업이 收益을 얻기 위하여 用役 (services) 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공함으로써 收益獲得過程 (earning process) 이 完了되었거나 사실상 完了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기준을 충족할 경우 收益은 인식되는데 收益認識時點 (revenue recognition points) 은 다음 그림에 있는 기업의 收益獲得過程에 비추어 여러 시점이 될 수 있다. 즉, 생산기간 중 생산완료시점·판매시점·대금 회수시점에서 收益이 인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따라 收益實現基準이

열거될 수 있다.

收益獲得過程과 收益實現基準



(2) 收益의 측정 (Measurement of Revenue)

收益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얼마의 貨幣額으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收益은 交換價値(exchange value)로 측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交換價値란 財貨·用役과의 교환으로 받게 될 現金·現金請求權이 된다.

이론적으로 收益은 現價(present value)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現價計定에는 主觀性이 개입되고 割引率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收益去來에서 割引額은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보통 收益은 現價로 측정하지 않고 받게 될 現金·現金請求權으로 측정된다. 收益과 관련된 다음의 특수한 경우에 收益의 측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賣出에누리와 還入…收益의 차감항목 回收不能債權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貸損…販賣費와 一般管理費로서 貸損償却 또는 貸損充當金轉入額으로 계상.

賣出割引…營業外費用으로서 金融費用으로 취급.

(3) 收益의 실현 (Realization of Revenue)

實現이란 “現金 以外の 資源·權利를 貨幣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資產을 現金·現金請求權과 교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收益의 실현이란 收益의 인식과 측정이 이루어져 收益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收益을 計定 또는 財務諸表상 계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 收益의 실현은 收益의 인식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수도 많다.

收益實現基準 (revenue realization basis) 으로는 ① 生産基準, ② 販賣基準 ③ 回收基準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한다. 이들 기준은 收益을 어떤 시점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收益認識時點決定基準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主要經濟活動 (major economic activity) 이 수행된 시점.

기업의 主要經濟活動이 무엇인가에 따라 收益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生産活動, 販賣活動·代金回收活動 등 어느 것이 主要經濟活動인가를 판단하여 收益의 인식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② 決定的 事象 (critical events) 이 발생한 시점.

收益의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決定的 事象이 나타난 시점에서 收益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決定的 事象이란 가장 중대한 의사결

정이거나 행동이 수행되는 것으로 상품의 수납 등이 되거나 또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③ 純實現價値 (net realizable value) 概念에 의한 시점.

收益을 純實現價値에 의하여 인식하는 기준으로 위의 決定的 事象基準을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收益은 決定的 事象이 있을 경우에 인식하지만, 추가로 경제적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經濟的 活動이 나타난 후인 차후의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다. 이로써 收益은 최종적으로 실현될 現金販賣額에서 追加的 製造費·販賣費를 차감한 純實現價値가 된다.

나. 費 用

1) 費用의 의미

費用 (expense)이란 재화의 인도·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기업활동으로 일정기간 중 나타난 資產의 유출액·소비액 또는 負債의 발생액이다. 費用의 대표적인 예로는, 賣出原價 (cost of sales 또는 cost of goods sold)와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가 있다. 賣出原價는 기간 중 판매된 商品·製品의 原價 또는 제공된 용역의 原價이고,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商品·製品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판매활동에 관련된 비용과 기업의 관리·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費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① 消滅原價 (expired cost)

費用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로 費用은 당해기간 중 消滅한 原價라는 것이다. 즉, 費用은 당해기간의 收益을 얻기 위하여 당해기간 중 사용·소비하여 少減한 原價라는 것이다.

費用을 消滅原價로 정의함으로써 原價配分 (cost allocation)의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減價償却은 原價配分の 대표적인 예로 有形固定資産의 原價에서 殘存價額을 삭감한 償却可能性을 殘存耐用年數 동안 상각함으로써 각 기간에 있어서 消滅原價로 인식하는 것이다.

② 株主持分の 감소액 (effect on stockholders' equity)

費用은 株主持分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일단 名目計定인 費用으로 발생하였다가 기말에 損益計定을 거쳐 利益剩餘金으로 대체됨으로써 株主持分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정의 중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②의 정의도 ①의 정의를 보완하고 있어 함께 인정될 수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2) 原價와 費用

原價와 費用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原價란 희생 (sacrifice)으로서 재화·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로 측정되는 것이다. 原價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資産 (asset)으로서 취득한 재화·용역을 평가할 때의 取得原價 (acquisition cost)를 가리킨다. 歴史的 原價 (historical cost), 代替原價 (replacement cost)도 資産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貸借對照表計定으로서의 의미이다.

둘째, 費用 (expense) 또는 損失 (loss)로서 취득한 재화·용역의 効益 (benefits)이 消滅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損益計算書計定으로서의 의미이다.

위와 같이 原價는 貸借對照表計定과 損益計算書計定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지만, 보통 損益計算書計定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原價는 費用과 동의어가 되거나 費用의 일부가 되고 있고, 收益과 대응되는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다. 損益計算書에는 收益에 대응하여 賣出原價(製造原價 포함)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利益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대응표시하고 있다.

原價와 費用은 전자를 製品原價, 후자를 期間費用으로 표시함으로써 구별된다. 製品原價(product cost)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품의 판매, 이외에는 資産(在庫資産)으로 계상되나, 판매 후에는 費用化되어 賣出原價로 계상됨으로써 收益(賣出額)과 대응되는 것이다. 期間費用(period cost)이란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발생기간에 부담할 費用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期間費用은 資産(在庫資産)으로 계상될 수 없어 當期費用으로 처리되는데,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등으로 계상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損益計算書상 製品原價는 賣出原價로 期間費用은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등으로 구별되어 계상된다.

原價와 費用은 나라에 따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日本의 경우 原價보다는 費用을 선호하여 製品原價에 해당하는 것도 費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예, 原材料原價라고 하지 않고 原材料라고 한다), 美國・英國의 경우 費用보다는 原價를 선호하여 期間費用에 해당하는 것도 原價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예, 收益・費用대응의 原則이라고하여 原價를 製品原價・期間費用을 모두 포함한 概念으로 사용한다).

3) 費用의 分類

비용은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1) 賣出原價 (Cost of Sales 또는 Cost of Goods Sold)

商品 등의 판매 또는 用役의 제공으로 계상된 賣出額의 原價이다. 원래는 在庫可能原價 (inventoriab le costs)였으나, 商品 등의 판매로 費用化되어 貸借對照表計定 (在庫資産)이 損益計算書計定 (賣出原價)으로 된 것이다. 보통 賣出原價는 期初在庫額 + 當期買入額 - 期末在庫額 = 賣出原價로 계산되는 損益計算書도 이 공식에 의하여 기재되는데, 이 공식에서 買入에누리와 賣出은 고려하지 않았다.

賣出原價는 收益인 賣出額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계정으로 賣出額에서 賣出原價를 차감하여 賣出總利益이 산출된다. 賣出額은 在庫資産의 판매액이고, 賣出原價는 판매된 在庫資産의 原價여서 두 계정은 直接對應이 된다.

賣出原價는 기업이 商品賣買企業인가 또는 製造企業인가에 따라 구성항목이 달라진다. 商品計定 뿐만 아니라 原材料 在工品 · 製品計定이 나타나고 當期商品買入額 대신 當期製品製造原價가 계상된다.

(2)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販賣費란 상품판매 · 용역제공의 판매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예를 들면 販賣員의 給料, 廣告宣傳費, 販賣手數料 등이 있다. 一般管理費란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管理職의 給料, 通信費, 保險料, 減價償却費 등이 있다.

「企業會計期準」에서는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를 묶어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계정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두 계정을 묶은 것은 두 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나, 관리목적을 위해서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外國의 경우에는 이 두 계

정을 구별하는 수가 많은데 「企業會計基準」 제 74 조의 但書에서는 “다만, 必要에 따라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로 각각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고 하여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營業費라고도 부른다. 營業費 (Operating expenses)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통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만을 지칭하며 賣出原價·營業外費用 등은 제외된다. 賣出總利益에서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를 차감하여 營業外費用 등은 제외된다. 賣出總利益에서 販賣費와 一般費와 一般管理費를 차감하여 營業利益이 산출되는데,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를 營業費로 간주하여 營業利益의 概念이 나온 것이다.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營業外費用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두 계정의 구별은 費用이 營業費인가 아닌가에 있으나, 계정에 따라서는 구별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企業會計基準」상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로 계상되어 있는 經常試驗研究費·貸損充當金轉入額·貸損償却(특히 短期貸與金 등의 貸損으로 인한)은 營業外費用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3) 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s)

기업의 주요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로 나타나는 비용이다. 예로는 支給利子·創業費償却·有價證券評價損失·在庫資産評價損失·賣出割引 등이 있다.

「企業會計期準」에는 營業外費用으로 22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4) 特別損失 (Extraordinary Losses)

非經常的·非反復的으로 발생하는 損失이다. 「企業會計期準」 제 87 조에 의하면 特別損失은 “ 經常損益 이외의 臨時的 損失 ”으로 規定되어 있다. 예로는 投資資産處分損失·固定資産處分損失·災害損失이 있다.

特別利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流動·非流動項目의 구별에 따라 流動資産處分損失은 營業外費用으로, 固定資産處分損失은 特別損失로 分類하는 경향이 있다.

(5) 法人稅 (Income Taxes)

法人稅는 稅法人 法人稅法(法人稅法施行令, 法人稅法施行規則 包含)에 의하여 法人인 기업이 각 사업년도의 課稅上 所得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稅率에 따라 納付하는 稅額이다. 이러한 法人稅는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산출되는 法人稅 차감전의 純利益(會計上の 利益)에 대한 것이 아니라, 稅法에 의하여 산출되는 課稅上 所得(稅務上の 利益)에 대하여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企業會計基準」 제 89 조에서는 法人稅 이외에 住民稅도 法人稅와 묶어 損益計算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모두 기업의 純利益(所得)에 대해 稅率을 곱하여 稅額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純利益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각종의 稅金(예, 財産稅 등 市稅)과 公課金(예, 電氣料)은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稅金과 公課計定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防衛費는 기업의 純利益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法人稅 등의 계정에 包含시킨다.

法人稅가 費用인가 아닌가에 대해 과거에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費用說이 우세하여 費用으로 취급되고 있다. 만일 法人稅가 費用이 아니라면, 法人稅는 損益計算書에 기재되기 보다는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法人稅를 費用으로 인정하더라도 營業外費用이나 特別損失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한 것은 기업의 利益이 確定된 후에 결정

되고, 純利益에 稅率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특별취급을 한 것이다.

費用 (Expenses) 역시 損失 (losses) 과 구별될 수 있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이들 용어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費用과 損失의 구별기준 역시 거래가 기업의 계속적 주요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인가 또는 주변적·부수적 거래인가이다. 이로써 費用은 기업의 주요영업활동인 상품 등의 매입에 관련된 資產流出額이 되고, 損失은 이러한 주요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로 인한 所有主持分(純資產)의 감소액이 된다. 비용의 예로 買入額이 있고, 損失의 예로 有價證券處分損失·固定資產處分損失·資產保有損失이 있다.

費用과 損失의 추가적 구별기준으로 收益·利得의 경우처럼 總概念·純概念 여부가 적용된다. 費用은 總概念으로 資產流出額 자체가 되나 損失은 純概念으로 資產流入額에서 原價를 차감한 것이다. 예를 들면, 有價證券處分損失은 費用이 아닌 損失로 純概念에 의한 것이다. 損失은 純損失 (net loss) 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는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할 때 收益이 費用보다 적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純利益과 반대되는 概念인 것이다. 費用 역시 광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費用 속에 損失이 포함된다.

4) 費用의 인식과 측정

(1) 費用의 인식 (Recognition of Expenses)

費用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費用의 期間歸屬 (timing of expenses) 에 관한 것이다. 즉, 비용이 언제 인식되는가 또는 발생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費用認識基準 (expense recognition criteria) 은 SFAC No. 5 에 의하면

經濟的 効益의 소비 (consumption of economic benefits), (資産의 소멸 또는 原價의 소멸)가 기간 중 인식한 收益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費用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收益에 직접 관련된 費用만을 對應시킬 것.

이 기준은 收益·費用對應의 原則 (matching conven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費用은 기간 중 인식한 收益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상되는 것이 製品原價 (product cost)로 損益計算書에 賣出原價로 기재된다. 賣出原價는 商品賣買企業의 경우 판매한 商品의 原價가 되고, 製造企業의 경우 제조한 제품의 原價 (製造原價)가 된다.

② 收益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관련시키기 어려운 費用은 당해기간의 費用으로 인식할 것.

收益·費用對應의 原則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費用이라고 하더라도 收益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당해기간 중 經濟的 効益의 소비가 확실한 것이면 그 기간의 費用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계상되는 것이 期間費用 (period cost)으로 損益計算書상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등으로 계상된다.

(2) 費用의 측정 (Measurement of Expenses)

費用의 측정이란 기간 중 소멸한 資産에 대해 얼마의 화폐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費用測定基準도 資産評價基準과 마찬가지로 ① 歴史的 原價 ② 代替原價 (現行原價) 등이 될 수 있다. 資産評價基準의 일반기준은 取得原價인 原價이므로, 費用 역시 原價로 측정되고 있다. 이로써 貸借對照表상 資産이 原價로 측정되고, 損益計算書상 費用도 原價로 측정되어 일관된 評價原則이 적용되는 것이다.

費用을 歴史的 原價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原價主義에 의한 것으로, 인플레이會計의 관점에서 費用은 時價인 代替原價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費用을 측정함으로써 收益은 現行收益 (current revenue), 費用은 現行原價 (current cost)로 측정되어 收益·費用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歴史的 原價主義會計하에서는 現行收益과 歴史的 原價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收益·費用의 대응이 잘못되고 있다.

다. 利益 (純利益)

利益 (income)은 利潤 (profit) 또는 純利益 (net income) 이라고도 한다. 利益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資本 (純資產)의 변동액 또는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當期純利益은 특정의 회계기간에 결정되는 利益으로 損益計算書에 표시된다.

SFAC No.3에서는 利益을 包括利益 (comprehensive income) 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包括利益이란 기간 중 기업의 資本 (純資產)의 변동액으로서 非所有主源泉 (non owner sources)에 의한 거래로 발생하는 것이다.” 또 “包括利益은 기중의 모든 資本變動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만 所有主에 의한 投資와 所有主에 대한 분배는 제외된다.”

이상의 정의는 利益을 기중의 資本變動額으로 정의하되, 所有主와 관련없이 나타나는 거래로 발생하며 所有主에 의한 投資 또는 所有主에 대한 분배는 利益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所有主에 의한 投資의 예는 增資가 있고, 所有主에 대한 분배의 예는 利益配當이다. 이러한 包

括利益은 資本維持概念과 包括主義에 입각한 利益概念이다.

利益과 반대되는 것이 損失이다. 損失(loss)은 純損失(net loss)이라고도 한다. 앞의 利益의 정의는 損失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資本變動額 또는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利益과 損失을 구별한다면 利益과 損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利益은 期末資本이 期初資本을 초과한 금액(단, 所有主源泉의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收益이 費用을 초과한 금액이고, 損失은 期初資本이 期末資本을 초과한 금액(但, 所有主源泉의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비용이 收益을 초과한 금액이다.

Ⅸ. 財務諸表의 유용성과 한계

財務諸表의 유용성과 한계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것만 열거하기로 한다. 이들 유용성과 한계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종합·정리한다. 財務諸表의 유용성은 利益의 유용성으로 설명된 바도 있다.

1. 財務諸表의 유용성

① 기업의 經濟狀況(財務狀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財務諸表는 기업의 經濟狀況을 기간별로 요약한 會計報告書로서 회계기준에 의한 歷史的 記錄이 된다. 經濟狀況은 經濟狀態(財務狀態)와 經濟狀況의 변동(財務狀態의 변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표시되고 후자는 損益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財務狀態變動表에 의하여 표시된다.

② 정보이용자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財務諸表는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채권자·경영자·주주 등의 經濟意思決定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가 된다.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채권자의 이용제공의사 결정·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 등의 의사결정이 있다. 정보이용자는 財務諸表로부터 기업의 富·收益性·現金흐름전망 등을 평가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③ 정보이용자간의 利害關係調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財務諸表는 정보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주주가 경영자에게 財産을 관리하고 증식시킬 것을 의뢰하는 受託責任(steward

ship responsibilities)은 두 정보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예이다. 그 밖에도 소유주와 잠재적 투자자, 소유주와 채권자, 소유주와 경영자, 과점주주와 소수주주, 소유주와 세무서, 소유주와 노동조합, 소유주와 소비자 등 상충된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정보이용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은 적절한 회계처리와 회계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기 타

- i) 기업에 대한 經營評價, 경영자에 대한 業績評價의 基礎資料가 된다.
- ii) 課稅의 기초자료가 된다.
- iii) 정부의 管理價格決定(예, 獨寡占商品價格의 결정), 公共料金の 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 iv) 社會·經濟政策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즉, 經濟開發計劃·金融政策·證券政策·消費者保護·勞動政策 등의 수립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2. 財務諸表의 한계

①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의하여 財務諸表가 작성되므로 현행의 會計原則에 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會計基準에 문제점이 있거나 비판이 있을 경우 財務諸表도 그러한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財務分析 또는 財務諸表分析의 한계도 된다.

② 貸借對照表計定(특히 資産)은 現行價値를 표시하지 않고, 貨幣價値의 變動을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를 겪고 있는데, 이처럼 貨幣價値의

변동이 있으면 아래의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 i) 資産의 原價가 時價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 ii) 債權者·債務者의 物價變動損益이 발생하나 보고되지 않는다.
- iii) 資産·負債의 損益이 발생하나 보고되지 않는다.
- iv) 歴史的 原價에 의해 收益·費用을 對應시키면 收益은 現行收益이고 費用은 歴史的 原價로 대응한다. 따라서 收益·費用對應의 原則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傳統會計에 대한 최대의 비판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最近에 인플레이會計가 論議되고 있다.

③ 많은 質的 情報(qualitative information)가 생략되고 있다.

財務諸表에는 많은 가치있는 정보가 생략되고 있는데, 특히 貨幣額으로 표시될 수 없는 非量的 情報(nonquantitative information)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非量的 情報의 예로는 人的資原情報, 경영자의 能力, 鑛物資源의 發見價値, 動·植物의 성장가치, 自家創設營業權 등이 있다.

④ 많은 推定(estimates)이 개입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推定을 하여야 한다. 推定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되기 어렵다. 推定의 예로는 賣出債權의 회수가능성, 在庫資産의 판매가능성, 有形固定資産의 耐用年數·殘存價額의 추정 偶發債務의 추정 등이 있다.

推定의 문제점은 합리적 測定基準·測定方法의 결여로 심화되기도 한다. 減價償却은 대표적인 예로서 有形固定資産의 耐用年數·殘存價格이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減價償却方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기간별 減價償却費가 다르게 계산되고 有形固定資産價格도 다르게 계산되는 것이다.

⑤ 財務諸表차 連繫性(articulation)으로 문제가 있다.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어 작성됨으로써 계정간에 서로 관련되고 금액 역시 관련되어 측정된다. 이로 인하여 會計測定에 문제가 나타나고 財務諸表가 난해한 것이 된다.

3. 財務諸表의 連繫性問題

(1) 財務諸表의 連繫性의 의미

財務諸表의 連繫性(articulation)이란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계정간·금액간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財務諸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① 貸借對照表는 當期純利益을 連結體(connecting link)로 하여 損益計算書와 연결된다.

②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는 貸借對照表의 前期移越利益剩餘金과 損益計算書의 當期純利益을 합한 금액에 당기의 利益剩餘金處分額을 차감한 후 次期移越利益剩餘金を 산출하여 작성된다.

③ 財務狀態變動表에는 財務資原의 源泉으로 損益計算書의 當期純利益·減價却費 등과 比較貸借對照表에서 얻은 固定資產의 取得 등과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의 配當金 등을 기재한다.

이로써 財務諸表의 連繫性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의 計定·金額이 서로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當期純利益은 이들 네 재무제표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네 財務諸表를 연결하는 連結體가 되고 있다.

財務諸表 連繫性的 長短點은 아래와 같다.

長 點 :

① 複式簿記 성립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財務諸表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複式簿記가 성립할 수 없다. 複式簿記의 조직적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② 二重的 檢證에 의한 自己檢證의 機能이 있다. 이것은 貸借平衡의 原理, 分介의 法則 등에 의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원래 複式簿記에 있는 기능이다.

③ 기업의 資源과 營業활동·재무활동·투자활동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短 點 :

① 財務諸表가 난해해진다. 財務諸表의 連繫性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이용자에게는 재무제표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고서가 된다. 財務諸表가 이처럼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教育받지 않은 정보이용자는 財務諸表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